

# ‘위안부’ 최초 보도한 일본 기자 광주 온다

〈우에무라 다카시〉

### 1991년 아사히신문 사회면 피해 할머니 인터뷰...일본내 반향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내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시상식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로 일본군 중군위안부 존재를 최초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업적을 광주에서 기린다.

‘석은 김용근 선생 기념사업회’는 “제24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우에무라 다카시(69·카톨릭대 초빙교수·사진) 전 아사히 신문사 기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용근(1917~1985)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기념사업회는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김용근 선생 흉상 앞에서 우에무라 교수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그의 공로를 치하한다.

우에무라 교수는 우리에게 ‘일본군 중군위안부 존재를 최초 보도한 기자’로 알

려진 인물이다. 지난 1991년 일본 아사히신문 사회면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 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공분이 일어났던 것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반면 일부 세력은 우에무라 교수의 기사를 ‘날조 기사’라고 깎아내리고 신변을 위협하는 등 일본군 중군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우에무라 교사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



에무라 선생의 활동은 석은 김용근 선생이 생전 학생들의 역사의를 일깨웠던 실천적 삶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우에무라 교수는 수상자 선정 소식을 알리는 기념사업회 측에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지 모르겠다. 대단한 영광이며 시상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 작전면에서 태어난 김용근 선생은 연희전문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한 뒤 광주로 이고, 전남고, 광주고, 전주고 등 호남지역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일제시대에는 치안유지범 위반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5·18 당시에는 제자 윤한

봉·정용화·김남표·은우근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1987년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독립유공자로, 2002년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추서됐다.

선생의 제자였던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선생님께서 학생을 돌보는데 월급 대부분을 쓰셔서 집에 돈을 제대로 가져다준 적이 별로 없었다. 제자들을 명문대에 보내려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키우는데 일생을 바치셨던 시대를 앞서간 참 스승”이라고 기렸다.

한편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김용근 민족교육상의 주요 수상자로는 홍성담 작가(23회), 채현국 이사장(21회·양산 효암학원), 김희용 목사(19회·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승우 교장(16회·늦봄학교), 장석우 전 전교조 위원장(11회·현 전남교육감 후보) 등이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 19:28, 달뜨기 04:49, 달지기 18:02

### 한낮엔 여름더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맑음 | 14/28 | 보성  | 맑음 | 11/25 |
| 목포 | 맑음 | 14/24 | 순천  | 맑음 | 14/27 |
| 여수 | 맑음 | 15/24 | 영광  | 맑음 | 11/25 |
| 나주 | 맑음 | 11/27 | 진도  | 맑음 | 11/25 |
| 완도 | 맑음 | 13/26 | 전주  | 맑음 | 12/28 |
| 구례 | 맑음 | 12/28 | 군산  | 맑음 | 12/25 |
| 강진 | 맑음 | 11/27 | 남원  | 맑음 | 11/28 |
| 해남 | 맑음 | 10/25 | 홍산도 | 맑음 | 12/21 |
| 장성 | 맑음 | 11/27 |     |    |       |



#### ◇바다 날씨

| 지역 | 바다 | 오전      |      | 오후      |      |
|----|----|---------|------|---------|------|
|    |    | 파고(m)   | 방향   | 파고(m)   | 방향   |
| 서해 | 남해 | 0.5     | 남동~남 | 0.5     | 남동~남 |
| 남부 | 남해 | 0.5~1.0 | 남동~남 | 0.5~1.0 | 남동~남 |
| 남해 | 남해 | 0.5     | 남동~남 | 0.5     | 남동~남 |
| 서부 | 남해 | 0.5~1.5 | 남동~남 | 0.5~1.0 | 남동~남 |
| 남해 | 남해 | 1.0~1.5 | 남동~남 | 1.0~1.5 | 남동~남 |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관심 |
| 자외선  | 높음 |
| 미세먼지 | 보통 |

#### ◇주간 날씨

| 날짜    | 날씨 | 기온    |
|-------|----|-------|
| 15(화) | ☀  | 16/29 |
| 16(수) | ☀  | 19/26 |
| 17(목) | ☁  | 20/24 |
| 18(금) | ☀  | 17/24 |
| 19(토) | ☀  | 16/26 |
| 20(일) | ☀  | 15/26 |
| 21(월) | ☀  | 16/27 |

### 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 제도 ‘본죽’ 등 대표 배임 혐의 기소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에 검찰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인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이란 명목으로 회사돈 50억 원을 챙긴 사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국 규모 프랜차이즈인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장모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를 묻는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 100주년



“무등산 사랑해 주세요”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지왕봉에서 12일 열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에서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무등산 정상 탐방예약제 도입

#### 식생 복원...차기 개방행사부터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 기간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된다. 13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정상부 훼손을 막고 차기 정상개방 행사부터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또 정상부 식생 복원을 위해 개방행사가 열리는 날에도 탐방객을 제한 수용하기로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종전 행사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부 개방시간에만 제한을 뒀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지난 12일 개방행사에서 참여한 정상부 탐방객 숫자를 정확히 집계해 적정 수용 인원을 분석할 계획이다. 탐방예약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반짝 더위...17일 비온 뒤 평년기온

#### 18일 구름 많고 포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광주는 구름이 많이 끼고, 예년과 비슷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8일 광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평년(낮 최고기온 20.5~23.5도)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와 함께 이번 주 광주는 15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이어가다 17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세월호, 최대 2년 목표신항 거치 필요”

#### 선조위, 국무총리 보고...7월초 선체보존 방안 윤곽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를 최대 2년 더 목표신항에 거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선조위는 지난 12일 오후 목표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황 보고를 하며 “미수습자 수색과 침몰 원인 조사 등을 위해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6일부터 활동 종료로 앞둔 선조위가 침몰 원인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정밀조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선조위가 선체를

미리 처리하면 2기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 2기 특조위 활동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까지 목표에 선체를 뒤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단원고 소재지인 안산 화랑유원지와 대부도, 세월호의 마지막 출항지 인천항,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도, 수색·수습의 거점지였던 진도, 목표신항만 등 선체 전체 또는 객실을 보존할 다양한 지역과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선조위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초 선체보존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믿음과 신뢰의 100년 기업  
www.kwpower.co.kr

#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 답도가능)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99KW \* 350기)

##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1차 99KW (잔여분) **분양완료**
- 제주 한림읍 2차 99KW (잔여분) **71기**
- 경북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10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남 천안시 1차 99KW (잔여분) **1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시 :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국도호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빌 리조트, 아덴빌CC, 캐슬렉스제주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학교

제주공항에서 24KM

태양광 사업 부지

관방단지에서 17KM

중문관광단지

태양광 설치 후 집중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홍풍, 싱가플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리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기후 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UN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 1644-4192

H) 010-5110-566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